

## 《《《《 고학년부은상 가난은 물리쳤어도 담배는 못 이겨

고양 신도초등학교 6학년 5반 임서진

“서진아. 아빠 담배 못 뺐니?”

“몰라요! 안 만졌어요.”

“진짜 못 뺐어?”

“네...”

오늘도 난 어김없이 아빠의 담배를 이곳저곳에 숨기기 바쁘다. 아빠께서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다 아빠를 위한 딸의 노력이란 것을 조금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며칠 전, 담배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보는 숙제가 있었다. 난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오야! 이게 다 뭐야?” 시커멓게 멍든 폐, 출혈있는 뇌, 노란 찌꺼기가 나오는 소름끼치는 대동맥...

우리 아빠의 몸 속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상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 질 것 같았다. 우리 아빠는 어려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할머니가 머리에 온갖 야채를 이고 이동네 저동네를 돌아다니며 팔아서 자식들 입에 풀칠은 겨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남이었던 우리 아빠는 힘겨운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 채소기르기, 신문 배달,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행상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고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바로 그 때 우리 아빠의 좌우명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또


장사를 하고...

이렇게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지금 장미를 기르는 그 넓은 땅도 살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 아빠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하우스로 나가신다. 그 뜨거운 뽕약볕 아래서 일을 해도 늘 즐거운 표정이시다. 아빠의 힘으로 일군 화원이기 때문일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늘 아빠를 존경해 왔다. 그 강한 의지로 가난을 물리쳐 오신 우리 아빠!

그러나 그렇게 의지가 강하신 분이 담배만큼은 어떻게 안 되는가 보다. 벌써 대여섯 번, 금연을 선언하시곤 다시 담배를 피셨다. 이제에는 아예 끊는 것을 포기하셨는지 “서진아. 아빠가 담배를 줄일게. 응? 한 번만 봐 주라”라고 하시며 비굴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신다.

‘저렇게 의지가 강한 우리 아빠도 못 이기는 담배의 유혹... 담배는 정말 무서운 거로구나’

나는 새삼 담배의 중독성이 무서웠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을 호기심으로 피우는 청소년들도 있다. 내가 다니는 학원 계단에선 서너 명씩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난 그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아빠 같이 의지가 강한 사람도 찢쩍대는 그 무서운 독약을 삼켜대다니...

가난은 물리쳐도 담배는 못 이기는 우리 아빠를 위해 난 끝없이 담배를 감추고 기도할 거다. 난 아빠를 사랑하니까! 

## 《《《《 고학년부터 은상 할아버지가 남긴 교훈

전주 효림초등학교 6학년 6반 김재학

나의 꿈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나 책만 보는 역사학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직접 체험하고 진실을 기록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해 준 분인 할아버지는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천자문과 사자소학을 직접 가르쳐주셨습니다.

“역사학자가 되려면 지금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과거를 바로 아는 것이라네. 과거를 알려면 한문공부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친구들 보다 훨씬 많은 한문을 알고 있습니다. 한문을 가르치실 때는 엄했지만, 틈틈이 장기를 같이 두시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특별활동 시간에 장기부에 들었는데 내가 친구들보다 잘하는 이유도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지금 곁에 안 계십니다. 담배가 할아버지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술과 담배는 할아버지의 큰 단점이었습니다. 술 주정도 심해서 가족, 친지들이 힘들어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내게만은 자상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재학아.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큰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격려해주셨습니다. 나는 술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담배라는 사실을 할아버지의 입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하루에 한 갑 반을 날마다 피우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몸이 그렇게 상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큰 비를 가득 머금고 있는 큰 먹구름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서히 목젓이 가늘어지고 기침이 심해져서

OO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엔 감기라고 해서 감기 약 만 드셨습니다. 며칠동안 약을 드셔도 낫지 않아 OO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폐암 초기’ 라는 것이었습니다.

‘폐암이라니 말도 안돼...’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담배를 못 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그랬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담배끊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나를 태우고 드라이브 가는 척 하고는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아무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끄럽고 염치 없다만 재학이 너는 담배 피면 절대 안돼. 담배는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야. 알았지?”

기침을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담배는 마약과 같다고 하더니 할아버지는 끝까지 빠져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입원을 했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말도 겨우겨우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계속된 치료에 지쳤는지 그만 줄을 끊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2001년 1월 18일 할아버지는 영영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게 역사학자의 꿈을 심어준 할아버지는 담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나는 평생동안 담배 근처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 날 온 가족의 눈물 배웅을 받으며 땅에 묻히는 할아버지를 보며 울면서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72**